

부모-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 분석

김 지 윤* (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석사)

김 명 자 (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)

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학 진학 후 갑작스러운 성적 자유를 경험하고 있고,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 설정이 없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.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성태도 및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성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. 이러한 가치관 정립을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, 특히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.

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배경변인 및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자녀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.

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,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. 자료처리는 SPSS 1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신뢰계수 (Cronbach's α), 요인분석(Factor Analysis), t-test, one-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.

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- 1) 대학생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은 평균 이상으로 측정되었고,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.
- 2) 대학생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은 성지식을 알게 된 시기와 음란물 시청 여부에 의해 개방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. 성지식을 처음 알게 된 시기가 빠를수록, 음란물 접촉 빈도는 자주 접할수록 성태도, 성행동이 개방적으로 나타났다.
- 3) 부모-자녀와의 의사소통유형이 대학생 자녀에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,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 허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4) 대학생 자녀의 성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성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부모-자녀간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소통 방식으로 서로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으며, 자녀가 독립을 하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파악되며, 본 연구의 결과,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부모-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파악하고, 이를 통하여 대학생 자녀의 건전한 성태도 및 성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.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성에 관련된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